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7.8

CEPA Insight

- 인니, 의류 등 수입품에 보호관세 부과..."중소기업 보호"
- 관광세 도입 4달만에...인니 발리, 50달러로 5배 인상 추진
- 한국 대기업 해외법인 인도네시아에 199곳 세워 "매년 증가 추세"
- 2024년 5월 인도네시아 수출 13.82% 증가
- 루피아 약세 언제까지 "수입에 선별적 조치를"

■ 인니, 의류 등 수입품에 보호관세 부과..."중소기업 보호"

‘무역장관 "100~200% 물리기로"...구체적 시기는 언급 안해’

- 인도네시아는 최근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00~20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줄키펠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과수입 될 경우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류, 신발, 섬유제품, 화장품, 도자기 등 다양한 품목에 보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 또한, 인도네시아 무역안전위원회(ITSC) 관계자는 관세율 결정을 위해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밀려드는 수입품으로 인해 전자제품과 약품 등 3천여개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나,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수입품이 부족해지자 해당 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보호관세 결정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인도네시아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4.06.30)

■ 관광세 도입 4달만에...인니 발리, 50달러로 5배 인상 추진

“관광세 올려 수준 높은 관광객 받아야”...제대로 확인 안 해 40%만 납부

- 발리는 최근 관광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리 타임스에 따르면 발리 주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의회에서는 크레스나 부디 주의원이 현재의 발리 관광세가 너무 저렴해 발리를 저렴한 관광지로 인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세를 5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객들의 행태를 언급하며 발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지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리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발리의 교육과 보건 부문에 사용할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발리 주지사도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이며, 관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세 납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세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약 220만명이 발리를 방문했으나 그 중 40%만이 관광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국내선 공항 점검이 느슨해서 발생한 문제로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06.24)

■ 한국 대기업 해외법인 인도네시아에 199곳 세워 “매년 증가 추세”

- 한국 대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법인 수가 199곳으로 늘어나며, 국가별로는 전체적으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187곳에서 2024년 6월 현재로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CXO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5조원 이상 88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29개국에 6천166곳의 해외 법인이 운영 중이며, 이는 국내 계열사보다 2천848곳 많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에 설립된 법인 수가 가장 많으며, 중국과 베트남 역시 많은 수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
- 그룹별로는 한화그룹이 824곳으로 선두를 기록하며, 이어 SK그룹과 삼성그룹이 각각 638곳과 563곳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중국의 법인 수를 줄이는 등 전략적인 운영을 보였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6.29)

■ 2024년 5월 인도네시아 수출 13.82% 증가

-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수출 실적이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1,042억 5,000만 달러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전해졌다. 비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의 수출은 특히 가공 산업과 광업 및 기타 부문에서 감소했다.
- BPS는 2023년 동기 대비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전체 수출이 3.52%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수출액은 1,042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6.23)

■ 루피아 약세 언제까지 "수입에 선별적 조치를"

- 미국 달러에 대한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약세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Indef)는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 이로 인해 루피아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안정성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약세가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불리하다며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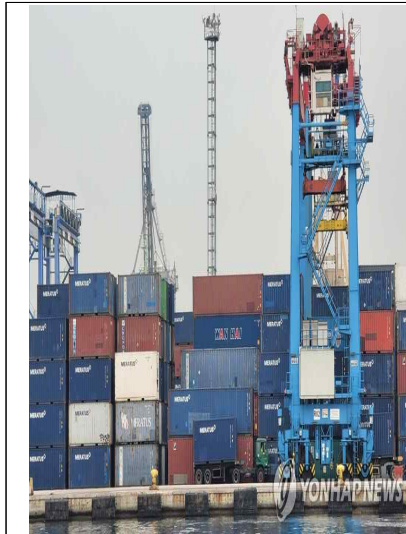
(출처 : 한인포스트)

<2024년 5월 수출 수입 실적>



(출처 : 한인포스트)

<루피아화 주간 환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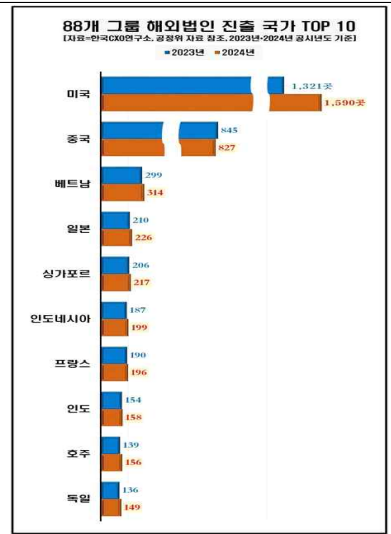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수출입>



(출처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출처 : 한인포스트)

<88개 한국 대기업 그룹 해외법인 진출 국가>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최근 의류와 같은 일부 품목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여 100%에서 200% 사이의 보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호 관세는 의류, 신발, 섬유제품, 화장품, 도자기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무역안전위원회(ITSC)는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 중에 있다. 한편 발리는 최근 관광세를 5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광 세수를 교육과 보건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대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의 약세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